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1차	일자	2021.05.03 18:30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참고자료: 1학기 예산자치제 추가제출자료, 총학생회칙.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O	O	O	O	O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O	X	O	O	O	O	10/13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과 함께 법학관, 서라벌 노동자 대상으로 노동절 감사인사 전함.
약학대학	5월 행사 관련해서 회의 진행 완료.
예술대학	-
의과대학	-
인문대학	체육대회 5/24~28일 진행 할 예정이고 종목도 구체화 완료. 공간문제 TFT 개설했고 활동 예정. 학생총회에 대해서는 5일, 3일, 1일 전에 홍보 예정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단학대회 예정. 공일이랑 푸앙이 콜라보해서 굿즈 제작 예정.
동아리연합회	심사 완료했고 가등록 동아리에 대해서 재심사 할 예정.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총학생회실 상주 사업 재개

중앙집행위원회	(교육자치) 교양과목 온라인강의 9주차 피드백 전달, 10주차 진행예정
	(연대사업) 학내 노동자 연대 영상 편집 중
	(홍보소통) 푸앙 2차 푸레젠트 굿즈 발송 예정
산하위원회	(문화위) 봄 축제 준비 중
	(성평위-인복위-장인위) 인권문화주간 준비 중
	(성평위) 운동챌린지 신청자 모집 중
	(인복위) 학내 노동자 감사 인사 릴레이 캠페인 진행 완료

총: 질의사항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해주시기 바란다. 네 없으신걸로 하고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다.

1. 예산자치제 추가자료 검토

- 미식축구부, 마케팅연구회, 흑룡, 레볼, 흑술

총: 미식축구부부터 추가자료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가 화면공유 해드리겠다. 지난 회의에서 미식축구부에게 요청한 내용은 라인테이프 및 운영물품,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한 바 있다.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해당 엑셀파일 보시고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1분동안 정독시간 가지도록 하겠다. 네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난 회의에서는 물, 음료, 간식비는 지원하지 말자로 논의가 진행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상기 두 가지 라인테이프 및 운영물품,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비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기억한다. 대표자분들은 의견 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는 음료, 물, 간식비 제외한 나머지 물품 지원하는 것에 의견 내겠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도 경경대와 같은 의견이다.

간호.정: 간호대도 같은 의견이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별다른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으니 다른 동아리의 추가자료도 검토하고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마케팅연구회의 자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네 마케팅연구회에서 제출해주신 추가자료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상품내역과 오프라인 활동 시 활동 계획을 기재한 상세자료를 요청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회신 온 추가자료이다. 1분 동안 정독시간 가진 후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선 최초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300,000원의 예산을 신청하셨지만 추가자료에는 501,200원의 지원금으로 재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자료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교통비랑 상품비를 제외하고는 지급을 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다.

부총: 부총이다. 저번이랑 최초 제출한 자료랑 지금 예상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중운위원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디까지나 추가자료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초기에 제출한대로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기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품비를 제외한 항목에 지원하는것에 동의한다.

총: 네 저도 동의한다. 왜냐하면 최초자료에 대한 미비사항을 이유로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자료의 양상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고려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총: 이게 참 애매한게 무엇이나면 최초자료를 보시면 300,000을 예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근데 해당 최초자료에는 자세한 예산내역이 없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최초신청금액이랑 상이해졌기 때문에 과연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연구회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자 라는 의견 드리겠다.

부총: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300,000원을 지원을 하되 여기 계획서의 세부항목에 나와있는 사용명목을 저

회가 지정해서 예를들면 섭외비와 대여비로만 사용하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회계내역을 받아서 사용내역을 다 보기 때문이다.

간호.정: 혹시 내역 재작성 요청이 가능한지?

총: 한번 더 추가자료를 요청하자는 말씀이신지?

간호.정: 네. 1차에서 300,000원을 했는데 2차에서 달라진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일단 가결된 300,000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재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 저희가 300,000원을 지원하겠다고 의결을 진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간호.정: 네. 의결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통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총: 금액에 대해서 통과를 한 것이 아니라 상세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도 그 상세 대역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확정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

간호.정: 재요청 관련해서 다른 것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총학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게 맞는 것 같다.

경경.정: 혹시 자료 재요청을 하실 때 어떻게 안내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300,000원의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셨는지 그냥 다시 예산 계획에 대한 걸 재요청합니까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후자이게 되면 바로 기각을 하는것보다 300,000원 내에서 재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바 이다.

총: 제가 300,000원 내에서 추가자료를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다. 왜냐하면 제 상식상 추가자료를 요청을 드리면 당연히 300,000원 내에서 추가자료를 내야한다는 생각이고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마케팅연구회 단체가 제출해주신 지원서의 내용 중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상품내역 및 오프라인 활동 시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자료를 추가요청합니다.' 라고 제가 마케팅연구회 담당자에게 보낸 바 있다.

인문.정: 총학생회장님께 여쭙게 있는게 총학생회장님은 그러면 마케팅연구회에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신지?

총: 네 맞다.

인문.정: 혹시 그러면 그 이유를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총: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당연히 최초에 제출된 지원금액에 한해서 이제 추가내용이 기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자료를 보시면 최초자료와 상이한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최초자료를 보시면 섭외비로 200,000원 정도, 그리고 상품비로 100,000원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추가자료를 보면 섭외비가 100,000원, 대여비가 296,000원, 교통비 57,200원, 상품비가 48,000원 이렇게 너무 상이한 내용을 제출해주시지 않았나 싶다. 만약에 추가자료를 또 요청을 했을 때에는 다른 단체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고 이는 오로지 총학생회장 1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사과.부: 저희는 처음에 마케팅연구회에서 300,000원의 지원을 요청하셨고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계획을 달라고 한 상황이었으니까 본 예산 계획이 추가적으로 온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자료는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원래 본 지원을 처음 하셨을 때 100,000원을 선배와의 만남, 그리고 나머지 차액 200,000원을 오프라인 활동에서 사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해당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통해서 300,000원을 지원을 하고 100,000원을 선배와의 만남, 200,000원을 오프라인 활동에 사용에 대해서 을 할 것 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300,000원을 지원하고 저희 내부에서 본 예산자치체의 규정과 맞지 않는 교통비에 대해서 해당금액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

러니까 상이한 금액이지만 이는 계획이 있고 여기에 500,000원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저희는 처음 명시한대로 3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총: 저는 아까 자료를 재요청하자는 간호대의 의견에 동의한다. 일단 상식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300,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만 해당 단체 측에서 그 내용에 대한 오인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한 문서를 요청한 내용 이외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달라진 것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으나 예산 300,000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으로 다시금 요청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통공:정: 공대의견 있다. 우선 저희 의견은 처음에 주신 지출 예산안은 솔직히 말해서 대충 작성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7만원 디퓨저에 대한 것은 강사섭외비로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상품비, 기프티콘으로 인지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세미나실, 4D룸, 교통비는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저는 그냥 저 3가지 경우는 아예 논의대상에서 빠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1,5번 강사비, 섭외비 정도만 논의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게 공대의 생각이다. 최초로 주실 때도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된다면 각종 장소 대여비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있었다면 고려할만 하지만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자료와 너무 상이해서 2,3,4번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문:정: 인문대학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최초에 예산자치제에 대한 양식을 배포할 때 그 양식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사용목적이라든지 예상금액이라든지 비교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양식이 존재하지 않아서 300,000원을 적어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음 예산안에 $+\alpha$ 된 금액이 있는데 이 α 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간호대에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최초로 제시를 해주신 300,000원 지원금액에 대해 추가자료를 재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게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경경:부: 경경대는 방금 인문대에서 말씀해주신 것 같이 원래 처음에 정해져있던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추가 300,000원에 대한 추가자료를 재요청하는 것 보다는 이전에 사과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신청하신 300,000원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한 후 교통비, 상품비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또한 처음에 해당 단체에서 신청해주셨을 때, 오프라인 활동비를 통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 세미나실 대여비 등이 오프라인 활동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서로 상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학:정: 약학대이다. 저희는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 내고 싶다. 너무 기존 총학생회장님의 말씀처럼 기존에 주신 기획안과 너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굳이 조금 여유롭게 나중에 준 기획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장님과 의견과 거의 동일하다.

부총: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초기 제출된 자료와 기획안이 다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70,000원의 지출과 100,000원의 지출은 기존에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 이번 1학기에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 300,000원의 예산을 신청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적지 않은 것이지 70,000원, 100,000원이 이 단체 사용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과 다른 내용이 지금 추가자료에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이 단체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501,200원을 제출을 했다. 그리고 초기에 예산자치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중 300,000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만 적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정: 그 부분이 경경대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다고 생각이 된다. 사용내용이 1차와 상이한 부분이 아니라면 지원 결정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들어서 활동계획서 부분은 변동에 관해서는 예산자치제의 목적이 지원이라면 충분히 내역에 대한 재요청은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한다. 예산 300,000원 내에서.

사범:정: 사범대도 300,000원 내에서 예산계획 재요청하는 것에 동의한다.

총: 추가자료를 요청하자 아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말고 바로 지원 여부에 대해서 의결을 하자는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의결을 진행을 하고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지원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의결이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다.

동연.부: 동연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회장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그러면 의결은 차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흑술 단체에 대한 추가자료 검토하도록 하겠다. 흑술 단체는 최초 자료를 보시면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달라라는 내용의 추가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흑술은 30,000원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추가자료를 제출해주셨다.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저는 추가자료 요청한 이유에 부합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약학.정: 약학대학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다수의 대표자분들께서 동의의사를 표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흑룡이라는 단체에 대한 추가자료 검토하도록 하겠다. 네 흑룡이라는 단체는 예산자치제 제 4조 3항에 근거해서 20%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그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한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였다. 따라서 추가로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1,100,00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시간 1분 가지도록 하겠다.

인문.정: 혹시 1,100,000원에 대한 예산계획은 안주시고 저것만 주신건지?

총: 네 본인들 행사에 필요한 금액은 2,080,000원인데 나는 2,080,000원 중에 1,100,000원을 지원한다 이렇게만 기재를 해주셨다.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그 지원금이 어떤 활동에 얼마나 쓰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할 텐데 단순 지원금으로 표기하는 것은 나중에 회계내역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역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다는 의견이다.

사과.정: 사과대는 마케팅연구회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 의결과 더불어서 흑룡에 대해서도 1,100,000원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부결이 되면 추가자료 요청하지 않고 1,100,000원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고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의결이 가결이 되면 흑룡이라는 단체에도 추가자료 요청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다.

총: 저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님과 의견과 동일하게 마케팅연구회와 동일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또한 추가자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혹시나 러버솔과 DOT 단체가 의결이 되었을 때의 자료를 보니까 가결이 된 동아리는 다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주셨다. 그래서 이미 가결된 동아리와의 형평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간호.정: 네 간호대도 같은 의견이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정리하도록 하겠다. 미식축구부에 대한 논의는 물, 음료, 간식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마케팅 연구회와 흑룡 단체는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자, 그리고 흑술은 바로 의결을 하자 라는 의견을 모아진 것으로 기억을 한다. 따라서 미식축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란다. 네 채팅창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미식축구부'에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 중 물, 음료, 간식비를 제외한 금액인 490,500원을 지원한다.'를 의결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님과 기권하시는 대표자님도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참석단위 10단위 찬성9단위 반대 0단위 기권1단위로 지원이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다음으로 흑술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흑술'에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인 30,000원을 지원한다.'에 대해서 의결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과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참석단위 10단위 찬성10단위 반대0단위 기권0단위로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다음으로 마케팅 연구회, 흑룡 단체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의결이다. 마케팅연구회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 의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다. "마케팅연구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라는 의결명으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반대와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도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참석단위 10단위 찬성6단위 반대3단위 기권1단위로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다음으로 흑룡에 대한 의결이다. "흑룡'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에 대해서 의결 하겠다. 흑룡에 대한 의결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반대와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도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참석단위 10단위 찬성9단위 반대0단위 기권1단위로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네 레볼이라는 단체에게도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5/1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지원은 기각된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레볼에 대한 의결도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이것도 조금만 논의를 하고 의결을 진행하면 좋겠다. 저희가 레볼에 최초로 합주실과 연습실 사용목적을 담은 추가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바로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결 진행해도 되는지?

간호.정: 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레볼'에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인 100,000원을 지원한다.' 라는 의결명으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도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도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참석단위 10단위 찬성1단위 반대5단위 기권4단위로 부결되었음을 알린다. 네 예산자치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미식축구부는 물, 음료, 간식비를 제외한 490,5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흑술은 30,000원을 지원한다라는게 가결되었다. 레볼은 부결되었고 마케팅연구회와 흑룡은 추가자료를 요청한다는 의결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주 토요일을 회신 기한으로 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다. 따라서 차기 중운위 회의 때 예산자치제 추가자료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차기 중운위 회의의 본 일정은 5/10이지만 해당일에는 학생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 다른날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중운위 회의를 진행하겠다. 미식축구부와 흑술에 대한 지원 금액은 내 일중으로 바로 입금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의결이 진행 중이라서 경경대 부회장님 수락하지 않았다. 논의안건 1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지? 네 없으시므로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논의안건 2번도 회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 3분동안 휴게하고 35분부터 진행해도 괜찮은지?

사범.정: 네 괜찮다.

총: 네 35분에 뵈도록 하겠다.

2. 2021-1학기 전학대회 회칙 개정 논의

총: 회의 재개하도록 하겠다. 다들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전학대회 관련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5월 7일 전학대회 소집 공고가 배포될 예정이며 5월 14일 전학대회 자료집 배포 및 안건 상정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저희 중운위는 최소한 5월 12일 전까지는 안건 상정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총: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한글파일로 화면공유하고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회의 재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2장 학생총회 제13조에 해당하는 회칙들을 개정해보았다. 이는 초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드백주시기 바란다. 우선 이렇게 작성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는 항과 2항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항이 상충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초안을 잡아봤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다.

총: 또 저렇게 조항을 해석을 하게 된 계기는,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그 요구일시를 예측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전이라고 명기를 하였고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조항은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3일 이내 소집해야한다고 해석을 했다.

인문.정: 인문대학 의견 있다. 총학생회장님이 주신 안 중에서 2항을 보시면 3일 전에 공고하고 3일 이내 소집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3일 전에 라는 문구보다는 3일 이내에 공고하고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명부를 확인하는데, 명부를 확인할 때 명부를 확인한 3일 이내 공고한다가 더 맞는 것 같아서, 3일 전에 공고한다는 게 사실 학생총회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다.

총: 그러면 3일 이내에 공고하고 소집한다라는 말씀이신지?

인문.정: 네 3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 이후 3일 이내에 소집을 하면 될 것 같다.

사과.부: 사과대도 해당 의견에 추가의견 있다. 개정하신 13조 1항과 2항 모두 10일전에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소집한다는 말 자체가 또 다시 상충되는 표현 같아서 아예 2항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1항의 내용도 같이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다.

총: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3일 이내 공고하고 공고 이후 3일 이내 소집한다는 말씀인지? 그렇게 되면 총 6일 아닌지?

인문.정: 저희의 생각은 공고와 소집 자체의 개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의견 드렸다. 3일 전에 소집한다라는데 3일 뒤에 열겠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문구가 작성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500인 명단을 받았을 때 3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공고 이후 3일 이후에 소집한다 그러한 취지로 쓰신 것 같아서, 수정하면 공고와 소집의 의미를 좀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학생총회에서도 공고의 의미와 소집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좀 여러 학우분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 같아서 공고의 의미와 소집의 의미를 명확히 분리해서 서술하면 좋겠다는 게 인문대학의 의견이었다.

사과.부: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1항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10일 전에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소집을 하는 건데, 10일 이내 소집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딱 10일을 맞춰서 했을때는 10일 전에 공고가 되지만 해당 조항같은 경우 더 빠르게 소집되면 10일 전 공고가 시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총: 그러면 전까지로 표기를 수정하면 되는지?

간호:정: 혹시 그러면 총회 3일 전에 소집과 상정안건을 공고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총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집이라고 보신 것 아닌지? 그렇게 되면 총회 3일 전에 소집과 상정안건을 공고한다라고 하면 그게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총: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간호:정: 총회 3일 전에 소집과 상정안건을 공고한다가 제가 사과대와 인문대에서 얘기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소집공고와 소집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집공고와 소집을 총회 개회를 말씀하신 거 아닌지?

인문:정: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일단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님이 원안을 작성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은데, 10일 전에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소집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10일 전에 공고한다는 것이 학생총회 10일 전을 의미하는 건데 10일 전에 공고하고 10일 이내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깔끔하게 예를 들어 10일 전에 소집하고, 그러니까 요구가 있으면 요구가 있는 일자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집공고를 내고 그로부터 며칠 안에 소집한다 이러한 의미로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회칙은 좀 명확해야 해석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소집 일정과 공고 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다. 지금의 총학생회장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10일 전에 공고하고 10일 이내 소집한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서로 뭔가의...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다.

총: 네. 요구일에 공고하고 3일 이내 소집한다 이런 느낌은 어떠신지? 이걸 그냥 가안이라서

간호:정: 말씀하시는게 이내라는게 모호하기 때문에 전으로 표기하자는 그런 말씀 아닌지?

경경:정: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집 자체가 학생총회가 열린다는 건데 10일 이내에 소집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소집일이 7일이 될 수도 있고 8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10일 전에 공고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상충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요구일에 공고하고 3일 이내 소집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이 요구일 자체를 확정일같이, 요구가 확정된 날로 표기가 되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있다.

인문:정: 제가 말씀드릴 것을 경경대 회장님이 정리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

총: 이건 어떠신지? (요구가 확정된 날에 공고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 소집한다)

인문:정: 근데 약간 이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명단 제출일을 요구확정일, 요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기존의 표현이 나올 것 같다.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며칠 이내에 공고하고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집한다 이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500인의 요구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그걸 검토하는 시간까지가 있는데 그 요구안 확정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있을 것 같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제가 이해한대로 워딩을 치자면 요구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 직후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 숫자는 바꿀 수 있는데 의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간호:정: 명단이 확인된 그날 공고를 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닌지?

총: 네

통공:정: 지금 제가 헛갈리는 게 소집이 개회랑 똑같이 해석을 하고 계신 건지

총: 소집일이 곧, 소집요건이 충족되면 개회일이기 때문에 소집과 개회는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

통공.정: 저는 3일 만에 준비가 다 이뤄질 수 있나 해서 10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일단 인문대에서 말씀해주신 헛갈리지 않으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다.

총: 그러면 인문대 회장님이 요구가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도 애매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표기 수정을 하면 좋을지?

인문.정: 죄송하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요구가 확정된 날을 500인 이상의 명단이 확인된 날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총학생회장님이 주신 의견과 각 단과대 회장님이 주신 의견을 제가 채팅창에 정리를 한 번 해봤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다.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시점으로부터 3일 안에 소집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논의된 것의 최종 결론인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다.

총: 지금 날짜를 좀 늘리자는 말씀이신지? 만약에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하면 요구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6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저는 지금 3일 이내 공고하고, 그러니까 월요일에 명단이 확인이 됐다면 목요일에는 소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회칙을 보면 3일 이내 반드시 소집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지금 현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표자분들께서 3일 이내 소집하는 것은 그 어떠한 안전이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일수도 늘릴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3일 이내 반드시 소집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살려두기 위해서 저런 초안을 가져온 것이다.

인문.정: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은 3일 이내 공고와 소집을 모두 해야된다는 말씀이신지?

총: 확정된 날에 공고를 때리고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다. 이것이 현 회칙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표기가 소집일과 소집 공고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문.정: 그래서 저희 어제 인문대학에서는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3일 이내 공고와 소집이 학생자치 차원에서 조금은, 안전 정리도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3일 이내 공고하고 3일 안에 소집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었다.

간호.정: 인문대는 6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지?

인문.정: 그렇다.

간호.정: 네.

총: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 두 가지 쟁점인데, 첫 번째로 3일 이내 소집과 공고를 다 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초안이었고, 인문대 회장님께서 그것은 너무 촉박하니 6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 인문대 회장님의 의견이었다. 제가 사실 초안을 3일이라고 잡은 이유는 현 회칙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회칙의 의미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3일로 잡았고, 대표자분들께서 3일은 너무 촉박하니 6일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진다면 저 또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경경.정: 경경대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단 저희가 학생총회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너무 홍보기간이 짧았다는 거였는데 지금 인문대 회장님께서 공고를,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 공고를 하는 것은 안전 상정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것 같고 공고 시점으로 3일 안에 소집한다는 홍보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3일 이내 공고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는, 의견을 낸 학우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오히려 지체하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 확정된 날에 공고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 소집하는 걸로 1번이랑 2번은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10일 이내 소집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간호.정: 경경대 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1항의 두 가지 조건이 10일인 것과 2항이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비교했을 때 2항이 조금 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확정된 당일 공고를 하고 6일 이내에 소집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덧붙인다.

총: 10일이 아니라 6일?

간호.정: 네

총: 그러면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전학대회 그리고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가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공고하고 그로부터 6일 이내에 소집을 한다라는 것이 간호대 회장님의 의견이신건지?

간호.정: 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저는 경경대 학생회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6일은 좀 애매한게 만약에 월요일에 확정이 되면 6일 후면 일요일이다. 추후에 대면 시기를 생각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불가하니까 금요일에 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홍보 부족으로 정족수가 안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 6일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저도 10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500인 이상은 긴급을 요하는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바로 내리는 1번과의 차이가 있는 거고 대신 소집하는 건 10일까지 해야 어떤 총회 준비를 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도 10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못해도 일주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내주시고 금일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차기 중운위 회의 때 대표자분들 의견을 최종 수합하는 것으로 하겠다. .

경경.정: 추가 질의 있다. 그러면 1항에 관해서도 10일 전에 공고하고 공고 후 10일 이내 소집한다가 되는 것인지?

총: 2항과 동일한 맥락으로 1항 또한 수정이 되어야 하겠죠? 지금 표기법을 떠나가지고 일단 며칠 이내에 소집이 되어야 한다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차기 중운위 회의 때 최종 의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10일, 3일이라고 잡은 이유는 요구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결정한 것이고 이 또한 총학생회칙 내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3일이라는 시간, 10일이라는 시간을 잡았다.

총: 또한 제16조 2항과 3항과 5항을 보시면, 다들 보고 계신지 혹시? 네.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그리고 괄호 치고 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다. 그런데 제 36조를 보시면 36조 1항 단과대학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따라서 학생회장단으로 표기를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따라서 제16조 2항, 3항, 5항, 제 24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학생회장이라는 표기법을 학생회장단으로 표기를 변경하는 것을 요청 드린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동의한다. 그리고 또 하나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총학생회 회칙을 보시면 부총학생회장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 부학생회장으로 표기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도 통일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총: 감사하다. 이 또한 제가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총: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지금 상황이란 관련된 것만 말해야 하는지?

총: 아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개정이 되어야 한다면 부분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된다.

통공.정: 39조 보시면 괄호 안에 단과대 학생회장 4인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학생회장이라는 말이 부학생

회장이 대신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4인 이상은 제가 볼 때는 4개의 단위를 지칭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지금 회칙대로라면 꼭 4개의 단위의 학생회장이 와야 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워딩은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다.

총: 저 또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정을 할지 고민을 하는 바람에 금일 회의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다. 인문대 회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저희도 그 부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36조 1항을 보시면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라고 해서, 학생회장이 오든 부학생회장이 오든 둘 다 모든 단위별은 1표밖에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의결 조항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중운위 의결이 성립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서조항 자체가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왜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부학생회장이랑 학생회장이랑 차이점도 없고 단과대 학생회장 4인 이상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단위가 4단위 이상 참석한다는 건데 그거는 이미 의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단위별 의결권을 1표로 한다라는 것에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이 단서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요청드리고 있는 바이다.

총: 네 말씀해달라.

통공.정: 이거는 제 추리인데 이 조항이 왜 있나 생각을 해 봤는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는 단과대학이 아니다. 그래서 그 셋보다 많은 단과대가 일단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조항이 있는 거라고 추측했다. 그러니까 총, 부총은 어쨌든 총학생회 소속이고 동연은 단과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셋의 의견 보다는 단과대 의견이 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해석을, 추리가 된다 저는.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여부는 저도 아직 고민중이라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 제 예상은 그래서 있는 것 같다 정도다.

총: 저도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게 다 이해가 되는데, 혹여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말씀해달라.

간호.정: 39조에 재적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총: 인문대 회장님께서 의미하신 게 그런 것인지?

인문.정: 네. 그니까 제가 공대 회장님의 추리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위가 13단위다. 그런데 13단위의 과반은 어차피 7단위고 그러면 총, 부총, 동연 회장이 와도 4단위의 단과대가 참석해야 의결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그 추리도 이 조항으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단서조항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총: 저는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개정을 하려면 간호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재적단위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만약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경경대 회장 경경대 부회장 공대 회장 이렇게 참석을 하면, 잠시만요.

통공.정: 재적 단위로 바꿔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어차피 단위별 의결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경경.정: 말씀 들어보면 인문대학생회장님도 단위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재적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단서조항을 빼면 해결이 될 부분 같다.

인문.정: 제가 궁금한 건 재적위원과 재적단위가 도대체 뭘 차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다. 재적위원 자체가 저희 전부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히 하려면 재적 단위로 바꾸는 게 맞는데 개인적 궁금함은 재적 위원과 단위가 뭘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총: 재적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 모든 위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고 재적 단위라고 하면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

씀해주신 의결권의 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

간호.정: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36조 1항을 보면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에 총, 부총, 단과대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 회장단으로 있는데 거기에 단,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과 단위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

간호.정: 그리고 4인 이상 참석해야 된다는 게 중운위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게 단과대 학생회장이 아니라 4개 단위 이상이 있어야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총: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간호.정: 39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9조가 의결에 관한 건데,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4인이라고 돼있는데 4개 단위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다.

총: 그런데 그것은 재적단위라고 표결을 변경하면

간호.정: 그렇네요. 과반수 출석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 필요가 없다.

경경.정: 추가 질의 있다. 38조 2항 보면 여기서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위원은 저희 개개인으로 보면 될지?

총: 네 저는 모든 중운위 위원분들을 뜻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있으실지?

인문.정: 저희 39조 끝났는지? 다른 조항 개정...

총: 39조에 대한 추가 의견 없으시면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듣도록 하겠다. 추가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게 7장 41조를 보면 집행국의 구성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각 집행국장과 부장으로 구성한다고 나와있는데, 총학생회 국원에 대한 지위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총학생회 국원에 대한 지위보장이 지금 회칙 상으로는 전혀 안 되어있는 상황이다.

총: 국원을 포함을 하자는 말씀이신지?

인문.정: 그래서 제가 안을 만들어왔는데 한 번 들어 보시면, 저희 인문대같은 경우는 집행국장이 추천하고 총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다.

부총: 방금 말씀하신 게 국원의 지위를 회칙에 명시하자는 거고, 그걸 명시하는 방법은 국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집행국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말씀이신지?

인문.정: 네 그래야 국원의 지위 보장이 될 것 같다. 어차피 집행국 구성원으로 국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집행국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여 각 집행국장 부장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국장에 대한 설명이고 국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구성을 1항 2항으로 나눠서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총: 네 우선 집행국과 집행부장의 표기법도 각 회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집행국 집행부장의 의미 해석이 좀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아서 오늘 회의 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집행국이라는 표기 자체가 지금 각 단과대학에서 집행국이라는 국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집행국을 집행부로 수정을 하고 각 국장을 의미하는 부서의 장 명을 어떤 표기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이 덜 끝난 상태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것도 함께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인문.정: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니까 각 단위별로 집행부를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를 통합하자는 것인지?

총: 총학생회칙에 집행국장 집행부장이 표기법이 좀 이상하다. 어디는 집행국으로 되어있고 어디는 집행부로 되어있는데 이를 통일하자. 그리고 집행국, 집행부라고 되어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를 뜻하는 단어와 각 국을 뜻하는 단어를 통일하자라는 말을 전달드렸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지?

통공.정: 있다. 5조 2항에 보시면 회원의 의무에서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공대에서는 5조 2항을 아예 삭제하고 57조 가시면 57조 2항에 본회 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선택적으로 납부한다고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회비를 납입할 때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칙은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원의 의무에서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는 말 같아서 삭제하고 57조에서 선택적 납부 가능하다고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이상이다.

부총: 부총이다. 방금 공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일단 지금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회비납부가 회원의 의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에게 따로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게 바뀔 때의 문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도 학생회비를 사용한 사업의 혜택을 모두 받는 게 허가되는 것과 동일시되서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고치지 않는 한은 해당 내용은 기존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총: 혹시 공대 회장님 방금 부총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공.정: 당연히 다 인지하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말씀하신 관례가 있지만 이미 이 5조 2항은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관례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는 내용이 의무라고 나와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면 부총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항상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부총: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이 회칙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를 회원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나 권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런 성격의 조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간호.정: 간호대는 1장 5조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총: 총학생회장 동의한다.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해당 조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차기 중운위 회의 때 최종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다. 5조 2항 이외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인문대 회장님이 계신다.

인문.정: 죄송하다. 죄송할 건 아니지만 죄송하다. 하나 얘기드리고 싶은 게 55조이다. 55조를 보시면, 제 10장을 보시면 각 위원회라고 나와있는데 총학생회 회칙을 보면 총학생회 산하위원회라고 규정한 부분도 있고 각 위원회라고 여기에서는 나와 있어서 용어간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총학생회장이 학생총회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 집행국의 장이라고 되어있지 각 위원회를 통솔하고 있다고는 표기되어있지 않다. 각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30조 1항의 의미대로 보면 총학생회 집행부의 산하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대학교 전체 총학생회 단위 산하위원회로 보는 것이 맞고, 별도의 규정을 갖고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총: 제가 집행국 집행부장 표기법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제30조 1항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제55조 1항을 보시면 각 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산하기구이다. 따라서 총학생회장은 산하위원회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0조 1항이 의미하는 집행국의 장도 집행위원회와 산하위원회를 포괄할 수 있는 표기가 사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인문.정: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학생총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게 성평등위원회의 지위를 두고 총학생회장단과 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총: 우선 성평등위원회와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의견이 대립이 되다보니까 어떠한 한 의견으로 도출이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당시 학생총회에서 성평등위원회가 말씀해주신 산하 특별자치기구이다 총학생회장은 산하위원회이다 이렇게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성평등위원회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인문.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회칙상의 용어 통일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입장이다. 두 번째는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같이 인권침해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구같은 경우는 저희는 산하기구가 아니라 아예 특별기구나 특별위원회로 빠져서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제8조인가 9조에 있는 특별기구 조항을 보강해서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를 총학생회장 산하위원회가 아니라 그런 특별기구로 본다면 그런 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해서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인문대학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기구나 특별위원회가 보강이 된다면 중앙감사위원회도 어쨌든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그래서 부칙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위원회 명칭은 회칙상의 통일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총학생회장님 말대로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55조에 정의가 되어있으면 30조 1항에도 그러한 명칭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인권관련 성평등위원회나 장애인권위원회같은 경우는 특별기구, 기존에 있는 특별기구를 보강해서 표기를 하든 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해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감위도 그러한 성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감위도 어디에 소속되어있어서 감사를 진행하면 감사에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도 동일한 맥락 선상에서 봐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간호.정: 혹시 그러면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칙을 준비해오신 게 있는지?

인문.정: 오늘은 제안의 자리라 저희도 특별위원회 조항이 신설되거나 특별기구의 조항이 보강되어야 한다 정도를 생각해왔다.

간호.정: 네. 의견제시이신지?

인문.정: 의견제시이고, 혹시 참고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인문대학에는 특별위원회 조항이 따로 있어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드릴 수 있다.

간호.정: 오늘은 안건 상정하는 날이 아니라서 안건 상정을 할 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다. 제 말은 여기서 뭔가 지금 어떻게 조항을 정할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총: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

인문.정: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저는 제안을 오늘 받는다고 해서 이러한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의 조항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런 의도였다. 안건을 따로 상정했다라는 것은 아니다. 제안을 드린거고...

간호.정: 그렇게 이해했다. 이상하게 이해하지 않았다.

경경.정: 13조에 추가의견 내도 되는지?

총: 네

경경.정: 얘기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아서 1항에 대해서, 공대 회장님께서 10일 전에 공고하고 공고 이후 10일 이내 소집한다로 말씀하신 것 같고 어떤 분이신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의견은 2항과 동일하게 즉시 공고하고 공고 후 10일 이내 소집한다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총: 네 너무 많은 의견들이 오갔기 때문에 속기록 작성 되는데로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확인 되는데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 공운위에서 미리 의논을 해와서 적어온 게 있는데 타이밍을 놓칠까봐 적어온 걸 한 번에 말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지난주에 공운위에서 한게

총: 어떤 내용, 녹지관련 내용이신지?

통공.정: 아니다. 전학대회 회칙 개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적어온게 있다.

총: 네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먼저 7조 보시면 제2조에 목적을 할 때 제2조 띄어쓰기 붙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회칙 전체에서 단대라는 표현을 단과대라고 조금 명확하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 모든 회칙을 보면, 제가 봤을 때 단대학생 대표자회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공학대회 준비하면서 그걸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 그 다음에 먼저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61조 2항에 중앙선관위를 중선관위로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65조에서 예산자치제 띄어쓰기를 통일시켜야 할 것 같다.

간호.정: 말씀중에 끼어들어서 진짜 너무 죄송한데 혹시 표기상의 형식문제 관련 말고 내용 관련 문제가 또 있을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저희 단위의 경우 형식은 통일, 일괄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변경을 한다. 수정을 한다. 그래서 혹시 내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거니까, 먼저 말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제 개인의견이다.

총: 저도 동의한다. 쳐드리긴 쳐드렸는데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띄어쓰기나...

통공.정: 죄송하다.

총: 죄송할 건 아니다.

통공.정: 그리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14조에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이상의 참석으로 나와있다. 우선 이게 왜 1/8인지 모르겠지만 하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운위에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1/8이 저번에 삼천 몇 명이었는데...

총: 3159명이다.

통공.정: 먼저 1/8이 왜 기준점인지 모르겠고 첫 번째는, 너무 현실적으로 모이기 힘든 인원인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 학생자치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의 하향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것 말고는 내용적인 건 딱히 없다.

총: 네 저도 1/8이라는 기준점이 왜 세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1/8 이상의 학우분들이 참석을 해야 학생 총회의 의미를 가지지 않나 생각을 한다. 그래서 1/8이라는 기준을 잡지 않았을지?

통공.정: 저도 그렇게 인지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총: 해당 사항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저희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는 1/10을 채

택하고 있긴 하다.

간호.정: 그런 것 같이 인원수가 가지는 대표성만 있다면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적정선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근거만 있다면 하향조정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기준을 지금 당장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 또한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안전상정을 할 때 그것을 생각해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제시한다.

총: 네. 죄송한데 아까 공대 회장님 제 60 몇 조 2항 말씀하셨는지?

통공.정: 61조다.

총: 61조 몇항인지?

통공.정: 61조 2항 아닌지?

총: 아 61조 1항에는 중선관위로 되어있는데 왜 2항에는 중앙선관위로 되어있냐라는 말씀이신지? 알겠다.

통공.정: 맞다.

총: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18조 1항을 보시면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공대에서 나온 의견은 초라는 단어를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다. 그 근거 역시 현실적으로 초에 열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성을 반영한 이유이다.

간호.정: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작년 간학대회 때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의장이 소집한다고 수정한 바 있다.

사과.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 학기 초에서 초라는 단어를 기간적으로, 한 달 이내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학기 1회 의장이 소집한다는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다. 매학기 1회라고 하면 학기 말에 소집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해당 회의에서 예결산 심의 및 의결도 하게 되고 기타 의결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데 매학기 1회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방향성이 아닌가 의견 드린다.

간호.정: 그래서 저희 단위는 결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그 쪽이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 사과대 부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통공.정: 관련해서 저희 공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단 매 학기 초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 하고, 초에 열지 중간에 열지 말에 열지 책임은 어쨌든 의장이 쥐게 된다. 상식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걸 설명해야 하는데 학기 말에 여는 건 그에 대한 책임도 어차피 의장이 다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까지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어쨌든 본인이 책임자인데 생각 없이 학기 말에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초라고 나와 있으면 초에 해야 하는데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기를 말씀드렸다.

간호.정: 아까 사과대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산 심의 및 의결과 관련해서 문제기 때문에, 한 달 이내라는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초가 모호하기 때문에 초가 아니라 한 달 이내 의장이 소집한다라는 것이 회칙 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그게 회칙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보다 한 달 이내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린다.

경경.정: 경경대 기간 설정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나, 학년대표 선거나 이렇게 기간이 각 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달은 너무 촉박하다고 보고 각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길게 잡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간호.정: 기간 관련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한다.

총: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그 혹시 특별자치기구와 관련된 부분이라 학생총회 성사인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전상정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무슨 프로세스를 이용한 발의랑 채택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전상정이 별도로 왜 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주까지 각 중운위원들이 개정안을 직접 작성해서 와야하는 것인지, 작성해서 오고 안전상정까지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개정안을 이야기하면 다음주에 총학생회장단에서 개정안을 작성해오시는 것인지 개정안 작성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과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들이 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학생회장단에서 개정안을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만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중운위에서는 어떻게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해서 이루어질 예정인지, 안전상정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하다.

총: 네. 우선 전학대회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상정을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거쳐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다. 우선 총학생회장단이 1차 초안을 작성하고 중운위분들께 공유드릴 예정이었다. 공유된 개정안을 토대로 차기 중운위 때 논의를 하고 최종 의결을 통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제21조 1항에 근거하여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다.

사과.정: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면 오늘 나온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 중에서 특히 성평등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등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논의랑 학생총회 성사에 대한 논의가 정확히 하나의 합의점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추가적인 안전상정이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대의 경우에는 아까 인문대에서 주신 의견이라 동일하다. 해당 기구들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2019년 foc집회 이후로 성평등위원장단이 파면당했었고 2020년에도 62대 내부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성평위와 총학생회장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문대와 사과대가 발의를 했지만 이게 저희 중운위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총학생회와 각 위원회간의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에 개정안 작성해오시기 전에 각 위원회랑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학생총회 성사인원의 경우에도 저는 타 단위 타 학교의 회칙을 좀 더 참고해서 개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의견 딱 하나 더 있는데 64조, 총학생회칙 제64조 임기 부분에 총,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제31조에도 똑같이 총,부학생회장의 임기가 명시되어있어서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인 것 같아서 삭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다.

총: 제 31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사과.정: 제64조에 총,부학생회장 임기는 매년 당선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제31조에도 똑같이 명시되어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회칙에 중복해서 두 번이나 명시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64조는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네 알겠다.

간호.정: 질의 있다. 단과대에서 별개로 안전상정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면 준비를 해와도 되는 부분인 것 맞는지?

총: 네 그런 부분이다.

간호.정: 네

총: 네 추가의견 없으시면 기타안건으로 넘어가겠다.

4 기타안전

상정된 안전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전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탈곡기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운위 분들 대상으로 가두선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셔서 중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사과.부: 죄송한데 중간에 단어를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총: 가두선전이다.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

통공.정: 중운위가 학생총회 홍보를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인지?

총: 네 맞다.

통공.정: 이해했다.

동연.부: 제안인건지?

총: 제언을 해주셨다.

사범.정: 그러면 저희가 팸플렛같은 걸 들고 홍보하면서 돌아다니는지 캠퍼스에서?

총: 팸플렛을 돌아다니면서 배포하는 형식이 될 수 있겠고 확성기를 들고 선전을 하는 게 될 수 있겠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지지 않았고 가두선전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간호.정: 해당 내용이 회칙 상에는 업무에 명시돼있지는 않아서 중운위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나가는 그런 식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중앙운영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네.

동연.부: 동연도 방금 간호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동의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가두행진이 모여봤자 4인일텐데 그거 이상으로 모여지게 될텐데 만약 중운위 차원으로 하게 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범.정: 추가로 사범대 의견 드리면 가두행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온라인 상으로 저희가 카드뉴스나 공지글로 공유와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팸플렛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린다.

통공.정: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탈곡기에서 그렇게 요청하신 이유는 중운위가 학생총회를 개의회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다. 근데 방금 사범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대면 상황에 학교로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도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차라리 총학에서 만드는 자료집을 각 단위별 SNS나 단톡방에 공유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린다.

간호.정: 열의에 효율성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밖에서 그렇게 대표자가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중앙운영위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금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는 점 그리고 홍보의 방식이 그런 안전과 업무에 대비해서 단과대 회장으로서 홍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대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렇게 말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사범.정: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제안해주신 걸 거절하면 또 저희가 총회 개의회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실지?

총: 본인 판단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간호.정: 덧붙여서 총회와 관련해서 중앙운영위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동연.부: 절충하자면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차라리 중운위에서 참여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따로 받는다고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를 받는 걸로 하고 없으면 없는 걸로 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총: 제가 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동연.부: 다른 중운위 위원분들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다.

통공.정: 제 생각인데 그냥 총학생회장님께서 중운위에 전달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대신 의결을 해서 모은 게 아니라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고 참가하실 분 링크라든지 수요조사 정도 저희한테 진행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총: 뭐 가두선전을 하니 마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그냥 제언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안한다고 하면 안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된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중운위에서 가두선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전달드리겠다. 제가 준비한 기타안건까지 마무리되었고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내일 기획처장과 미팅이 혹시...

총: 네 맞다. 내일 제가 전달드린 바는 없는데 알고계셨다.

인문.정: 네 그래서 혹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총: 당연히 알려드리려고 했었다. 오늘 17시에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데 외부 일정 때문에 못 갔다. 기획처장을 만나는 이유는 일정조정을 하고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만나는 것이고 내일 오후 두시에 만나 뵙고 결과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통공.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등록금 고지도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학교 측에 전달이 되었는지?

총: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한 바 있다. 녹지는 이제 중앙문화와 함께 회비가 납부되기 때문에 중앙문화와 녹지 간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다.

통공.정: 근데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 여론을 보면 저희가 한 번 짚은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지금 다루는 건 아니고 어쨌든 2학기 등록 전까지만 다루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추후에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총: 네 이제 공대 회장님이 안건을 상정해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논의 시기 때 안건을 상정해주시면 중운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안건상정은 중운위 위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대 회장님께서 시의성 고려하여 안건 상정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네 확인했다.

총: 그리고 학생회비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학생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통공.정: 해당 관련해서 제가 다이렉트로 디엠 보냈고 답변은 받았다.

총: 네 추가의견 없으시면 중운위 21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죄송한데 19차 회의록 20차 회의록 둘 다 누락된 것 같아서 회의록 제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다.

부총: 네 찾아서 드리겠다.

총: 추가의견 없으시면 폐회하도록 하겠다. 고생하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